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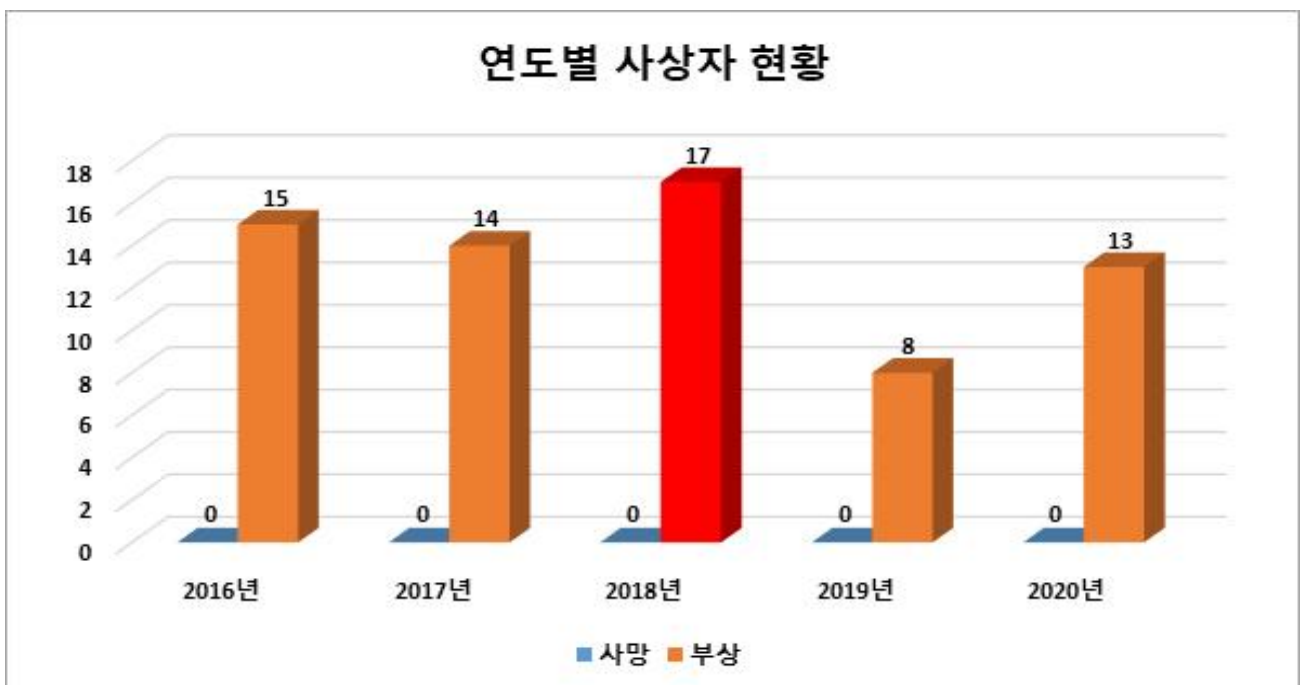
9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

= 추석명절 성묘 및 벌초 안전 주의보 =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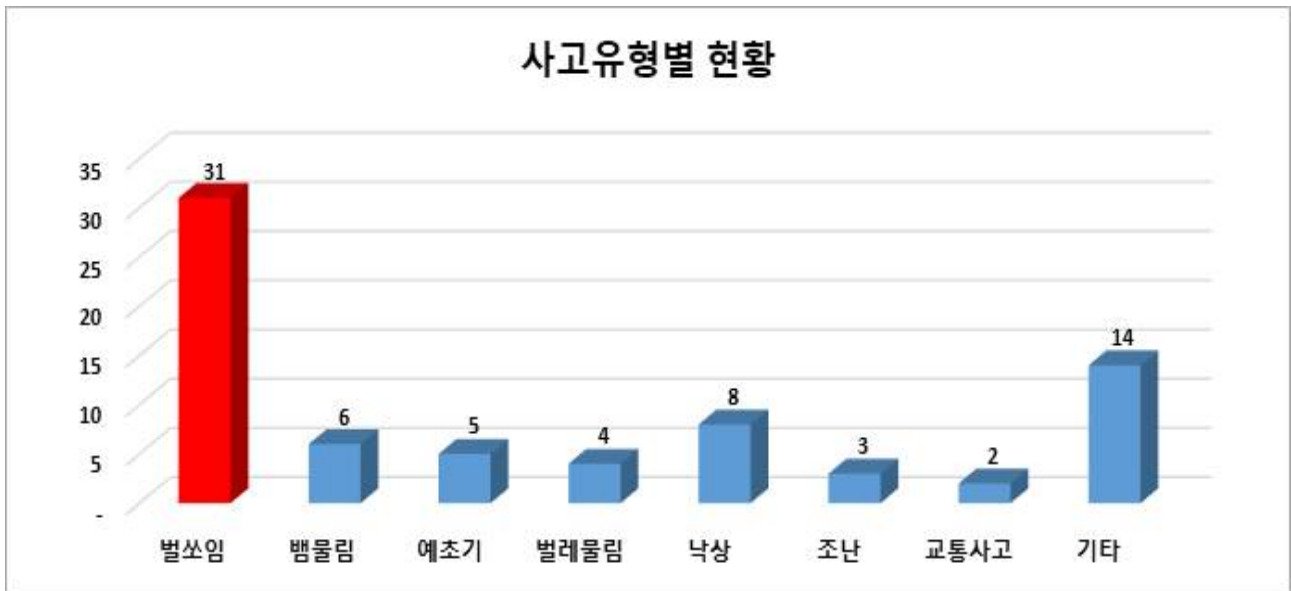
□ 연도별 추석명절 관련 사고현황

구분	계 (건)	벌초 및 성묘 관련사고				
		벌쏘임 뱀물림 벌레물림	예초기	낙상 조난	교통사고	기타
계	73	41	5	11	2	14
2016년	16	11	1	3	-	1
2017년	15	7	3	2	-	3
2018년	18	14	1	-	-	3
2019년	10	2	-	1	2	5
2020년	14	7	-	5	-	2

□ 연도별 사상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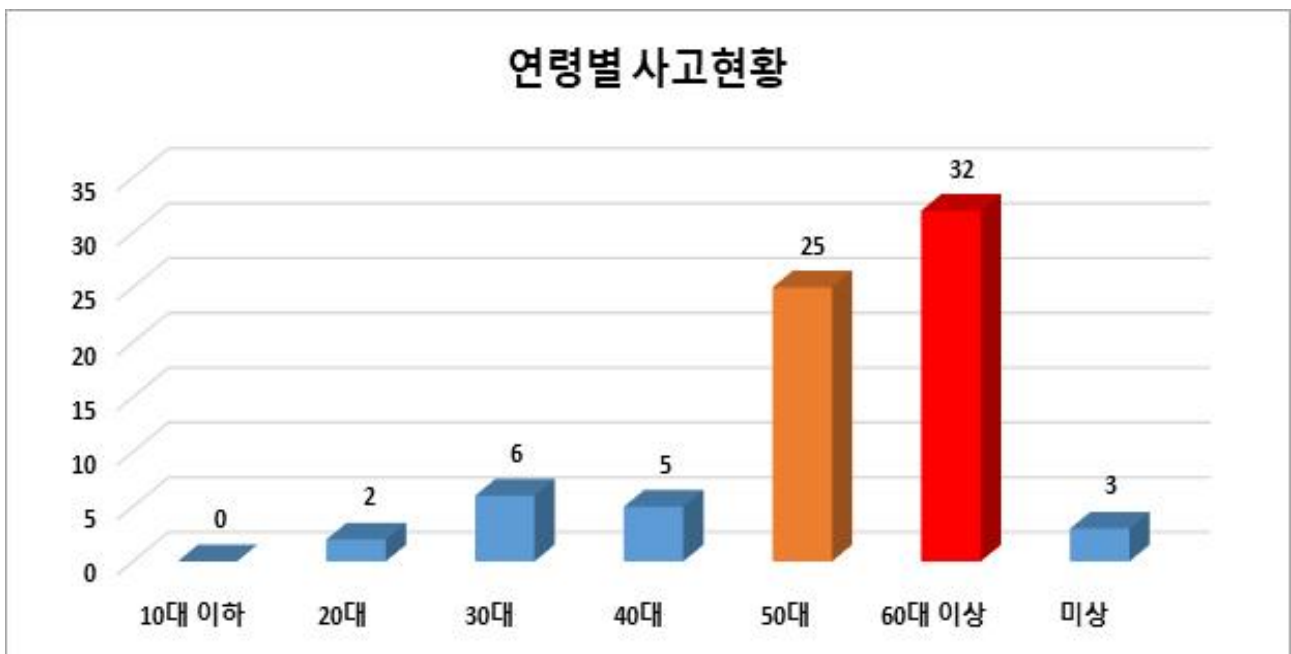


□ 사고유형별 세부현황



- 최근 5년간('16년~'19년) 도내 추석 명절 성묘 및 별초 관련 안전사고로 총 73건(사망 0, 부상 67)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, 이 중 별 쏘임 사고가 42%(31건)로 가장 많았고, 성묘 중 낙상 11%(8건), 뱀 물림 8%(6건), 예초기에 의한 부상 7%(5건), 벌레 물림 5%(4건)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연령별 사고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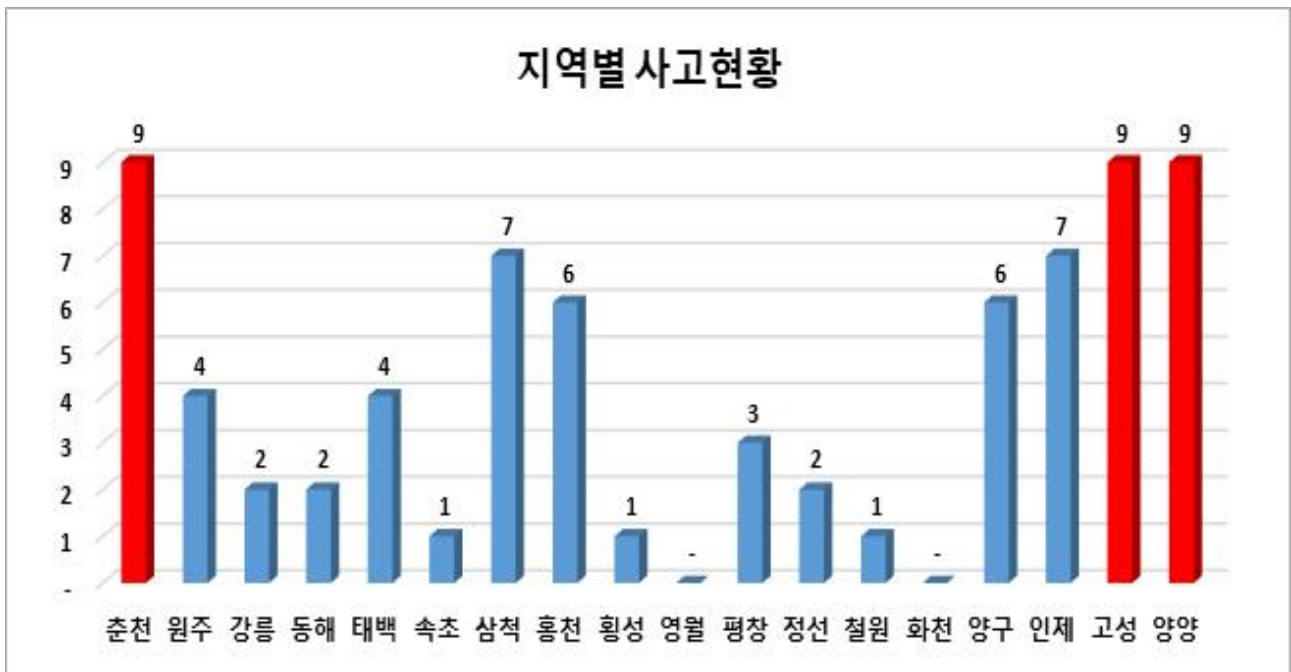
- 연령별로 살펴보면, 60대 이상이 44%(32건)로 가장 많았으며, 50대 34%(25건), 30대 8%(6건), 40대 7%(5건), 20대 3%(2건), 미상 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시간대별 사고현황(최근 5년간)



○ 시간대별로 보면 12~15시에 40%(29건)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9~12시 30%(22건), 15~18시 18%(13건), 6~9시 7%(5건)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지역별 사고현황(최근 5년간)



○ 지역별로 보면 춘천·고성·양양 12%(9건), 삼척·인제 10%(7건), 홍천·양구 8%(6건), 원주·태백 5%(4건), 평창 4%(3건), 강릉·동해·정선 3%(2건), 태백 3%(4건), 속초·횡성·철원 1%(1건)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벌 쏘임 대처요령

- 벌을 자극하는 향수, 화장품, 헤어스프레이 사용 등은 자제
- 벌집을 건드렸을 때 뛰어서 도망가지 말고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 하기
- 벌집을 없애려고 분무형 살충제 등에 불을 붙여 벌집제거를 시도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주의
- 만약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통증과 가려움 등을 가라앉히는데 도움
- 가벼운 증상이 아닌 호흡곤란 및 의식장애가 일어날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 방문

□ 뱀 물림 대처요령

- 산이나 들에 나갈 때 긴팔 옷이나 장화 등 보호의를 착용하고 잡초가 많은 곳은 막대기로 미리 헤쳐 안전유무를 확인 할 것
- 뱀에 물렸을 때에는 물린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심장보다 낮게 유지해 물린 상처가 있는 부위보다 5에서 10cm 위쪽을 수건으로 묶도록 할 것
- 독사에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 독을 빨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, 사람의 입안 상처나 충치를 통해 독이 전염될 수 있으니 이 같은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할 것
- 무엇보다 뱀에 물렸을 경우 119에 신고하고 간단한 응급처치 후 최대한 빨리 항독소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게 가장 중요

□ 예초기 사고 대처요령

- 작업도중 돌이나 칼날이 튀어 다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칼날 보호 덮개를 부착
- 예초기의 각 부분의 볼트 및 너트, 칼날의 부착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작업
- 보호안경, 안전화, 안전장갑 등을 착용하여 사고에 철저히 대비
- 예초기의 칼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, 경사가 심한 비탈면이나 굽은 나무 옆,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
- 이동 중에는 꼭 엔진을 정지시키고 작업하는 주위 반경 15m 이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할 것